

2025년 1월 14일

실무진 온라인 양식으로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
노스이스트 F가 100번지
워싱턴 D.C. 20549-7010

제목: 마이클 매커천이 제출한 주주제안

담당자님께

Tesla, Inc. (이하 "회사" 또는 "테슬라")는 이 서한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기업금융국 실무진(이하 "실무진")에게 회사가 2025년 주주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배포할 위임장 관련 서류(이하 "위임장 서류")에서 주주제안(이하 "본 제안")을 배제하려 한다는 뜻을 알린다. 본 제안은 마이클 매커천(이하 "제안자")이 제출했다.

회사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유로 회사가 위임장 서류에서 본 제안을 배제하더라도 실무진이 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알려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관련 실무진 지침에 따라 회사는 이 서한과 그 첨부 자료를 실무진의 온라인 주주제안 양식을 통해 제출한다.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증권거래법")상 Rule 14a-8(j)에 따라, 회사는 이 서한과 첨부 자료의 사본을 제안자에게도 동시에 보내며, 이는 회사가 위임장 서류에서 본 제안을 누락하려 한다는 뜻을 알리는 통지에 해당한다.

Rule 14a-8(k)와 Staff Legal Bulletin No. 14D (Nov. 7, 2008)(이하 "SLB 14D")의 E절은, 주주제안자가 위원회나 실무진에 제출하기로 한 서한이 있으면 그 사본을 회사에도 보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빌려 제안자에게 다음을 상기시킨다. 제안자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나 실무진에 서한을 제출하는 경우, 그 서한의 사본을 회사에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본 제안

본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시한다.

결의합니다:

일론이 재능도 많고 관심사도 많고 밈도 많은 사람이라는 건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로봇 찬성파입니다. 그 래도 주주로서 저희는 테슬라의 최첨단 기술이 지구와 인류를 먼저 위한다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행성 에도 야심 찬 과제가 이미 넘칩니다. 태양광을 키우고, 배터리 저장 기술을 완성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태양계까지 손대기 전에 먼저 집중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의 생명이 안정되고 지속가능 해질 때까지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앞당긴다는 테슬라의 사명을 최우 선에 두고 주로 그 사명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제안하는 실행 방안:

테슬라의 사명과 주주의 이익에 발을 맞추기 위해, 이 결의안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 밖의 기술 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 전기차 생산 증대처럼 세계 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일을 부수적인 목표보다 앞세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한 사업, 예컨대 개인용 옵티머스 로봇을 개발하거나 옵티머스를 은하 계 탐험에 내보내는 일에 상당한 자원, 곧 자본이나 연구개발이나 인력 배분을 쏟는 것은, 테슬라 가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뚜렷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 줄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그런 이정 표의 예로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배터리 용량을 1,000 GWh씩 생산해 배치하

는 것,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서 큰 돌파구를 여는 것,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는 것입니다.

- 이사회는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업이 회사의 사명을 어떻게 앞당기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자원 배분 내역까지 담아 해마다 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제안의 사본은 부속서 A로 첨부한다. _____

배제 근거

회사는 다음 근거에 따라 본 제안을 위임장 서류에서 적법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우리의 견해에 실무진이 동의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 증권거래법상 Rule 14a-8(b)(1)과 Rule 14a-8(f)(1). 제안자가 미비 통지를 받고도 요구되는 주식 소유의 증명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증권거래법상 Rule 14a-8(i)(7). 본 제안이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이다.

경위

본 제안은 2024년 12월 5일 제안자가 이메일과 UPS 택배로 회사에 제출했다(이하 이날을 "제출일"이라 한다). 제안자는 제출과 함께 뱅크가 발행한 계좌 명세서를 첨부했다. 그 명세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안자의 주식 소유를 확인해 준다는 것이었다(이하 "첫 번째 계좌 명세서"라 한다). 2024년 12월 16일 회사는 이메일과 UPS 택배 익일 배송으로 제안자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을 요청했다. (1) 제안자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이 진술서는 제안자가 요구되는 수량의 테슬라 보통주를 실질적으로 계속 보유해 왔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보유 기간은 본 제안의 제출일 이전 및 제출일 당일을 포함한 소정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안자가 본 제안에 관하여 회사와 면담할 수 있는 일정. 이는 Rule 14a-8(b)(1)(iii)에 따른 것이다(이하 이 서한을 "미비 통지"라 한다). 2024년 12월 28일 제안자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뱅크가 발행한 갱신 계좌 명세서를 첨부했다. 그 명세서의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이다. 이 명세서는 제안자의 주식 소유를 확인하고 미비 통지가 지적한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었다(이하 "두 번째 계좌 명세서"라 한다). 아울러 제안자는 본 제안을 회사와 논의할 수 있는 일정도 알렸다. 그 이메일에서 제안자는 뱅크가 "계좌 잔액 명세서나 거래 내역 보고서만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좌 명세서, 미비 통지, 그리고 관련 서신의 사본은 부속서 B로 첨부한다.

규정과 분석

A. Rule 14a-8(b)(1)과 Rule 14a-8(f)(1): 제안자는 본 제안을 제출할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

증권거래법상 Rule 14a-8(b)(1)(i)는 제안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려면 제안자가 다음 중 하나를 계속 보유해 왔어야 한다고 정한다.

- 해당 제안에 의결권이 있는 회사 주식 가운데 시장가치 \$2,000 상당 이상을, 제출일 이전 및 제출일 당일을 포함하여 최소 3년간 보유. 또는
- 해당 제안에 의결권이 있는 회사 주식 가운데 시장가치 \$15,000 상당 이상을, 제출일 이전 및 제출일 당일을 포함하여 최소 2년간 보유. 또는
- 해당 제안에 의결권이 있는 회사 주식 가운데 시장가치 \$25,000 상당 이상을, 제출일 이전 및 제출일 당일을 포함하여 최소 1년간 보유(이상 세 가지 기준은 각각 "소유 요건"이며,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리킬 때도 같은 용어를 쓴다).

제안자가 등록 보유자가 아니라면 해당 증권의 실질 소유를 증명해야 한다. Rule 14a-8(f)(1)에 따라 회사는 제안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 요건은 Rule 14a-8(b)의 요건이다. 다만 회사가 제안을 받은 날부터 14일(익일 기준)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미비를 통지하고, 제안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계좌 명세서는 Rule 14a-8(b)(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계좌 명세서만으로는 소정의 기간 동안 회사 증권을 계속 보유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Staff Legal Bulletin No. 14 (July 13, 2001)(이하 "SLB 14")의 Section C.1.c (2)에서 실무진은 계좌 명세서와 같은 정기 투자 명세서가 Rule 14a-8(b)의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2) 주주의 월간, 분기별 또는 그 밖의 정기 투자 명세서는 해당 증권의 계속 보유를 충분히 입증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주는 자기 증권의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서면은 해당 주주가 제안을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증권을 1년 동안 계속 보유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실무진은 Rule 14a-8(f)(1)에 근거한 배제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회사가 기한 내에 보낸 미비 통지에 대응하여 제안자가 제안 제출 자격의 증거를 제때 내놓지 못한 주주제안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LL Flooring Holdings, Inc. (Apr. 1, 2024)를 보라. 이 사안에서 제안자는 회사의 기한 내 미비 통지를 받고도 주주제안 제출 자격의 적절한 증거를 내지 않았다. 실무진은 Rule 14a-8(f)(1)에 따른 배제를 인정했다. The Home Depot, Inc. (Mar. 9, 2023)에서는 제안자가 회사의 기한 내 미비 통지를 받고도 주주제안 제출 자격의 증거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실무진은 Rule 14a-8(f)(1)에 따른 배제를 인정했다. Exxon Mobil Corp. (Feb. 13, 2017)에서는 회사가 적법하게 통지했음에도 제안자가 회사 주식의 소유를 적절히 증명하지 못했다. 실무진은 여기서도 Rule 14a-8(f)(1)에 따른 배제를 인정했다.

이 사안에서 제안자는 회사가 기한 내에 보낸 미비 통지를 받고도 본 제안을 제출할 자격의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는 2024년 12월 5일 본 제안과 함께 제안자의 제출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첫 번째 계좌 명세서를 받았다. 그래서 회사는 2024년 12월 16일 이메일과 UPS 택배로 미비 통지를 보내, 본 제안의 결함을 제안자에게 기한 내에 알렸다. 미비 통지는 그 미비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Rule 14a-8(b)의 요건을 짚었다. 그리고 첫 번째 계좌 명세서가 "Rule 14a-8(b)와 증권거래위원회 실무진 지침이 정한 소유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비 통지는 제안자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를 요청했다. 그 내용은 "제출일 이전 및 제출일 당일을 포함한 소정의 기간 동안 귀하가 미비 통지에 기재된 소유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수량의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미비 통지는 또한 제안자가 그 서면 진술서를 미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미비 통지에 대응하여 2024년 12월 28일 회사는 제안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 이메일에는 두 번째 계좌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제안자의 제출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안자는 뱅가드가 "그러한 서한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고 "계좌 잔액 명세서나 거래 내역 보고서만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따라서 제안자는 본 제안을 제출할 자격의 충분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 제안자가 자기 증권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부터, 본 제안을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 증권을 1년 동안 계속 보유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는 그 밖에 제안자의 주식 소유를 증명한다는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본 제안은 Rule 14a-8(b)(1)과 Rule 14a-8(f)(1)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 제안자가 기한 내에 미비 통지를 받고도 요구되는 주식 소유의 증명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 Rule 14a-8(i)(7): 본 제안은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Rule 14a-8(i)(7)은 주주제안이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경우 등록인의 위임장 설명서에서 그 제안을 누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ecurities Exchange Act Release No. 34-40018 (May 21, 1998)(이하 "1998년 발표문")이 밝힌 대로, 통상적 사업 배제에는 두 가지 "핵심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 어떤 업무는 경영진이 회사를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주주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제안이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세부 경영 간섭"하려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곧 주주 전체로서는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을 지나치게 깊이 파고드는지를 본다.

아래에서 논하듯이, 이 사안에서 본 제안은 두 고려 사항 모두에 걸린다.

a. 본 제안은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다.

본 제안은 회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지구 밖 개발보다 지구상의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본 제안은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전략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이다. 곧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업"보다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긴다는 ... 테슬라의 공언된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그 응용 분야가 우리 공동의 사명을 앞당기지 못하는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든다. 이는 적어도 세 가지 핵심적인 통상적 사업 사안과 관련된다. (i) 제품 연구, 개발 및 시험, (ii)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iii) 회사가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기술의 선택이 그것이다.

본 제안은 제품 연구, 개발 및 시험과 관련된 테슬라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 사업 배제 조항의 바탕에 있는 원칙에 따라, 실무진은 회사의 제품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제안에 대해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PepsiCo, Inc. (Feb. 28, 2012)에서 문제된 제안은 이사회가 단독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에 일정한 기준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실무진은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하면서, 그 제안이 회사의 "제품 연구개발"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제품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Rule 14a-8(i)(7)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Pfizer Inc. (Feb. 14, 2008)도 참조. 여기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이사회가 특정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실무진은 이를 "화이자의 통상적 사업 운영, 곧 제품 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Jan. 6, 2005)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이사회가 회사 고객에게 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 제안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품 설계와 개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Pfizer Inc. (Jan. 25, 2004)에서는 회사의 연구 규약을 바꾸려는 제안에 대해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이 제품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도 본 제안은 테슬라의 제품 연구, 개발 및 시험과 관련된 통상적 사업 사안에 해당한다. 본 제안의 제목은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그 사명에 집중시키기"이다. 본 제안은 이사회에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테슬라의 사명을 우선하고 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구상의 생명이 안정되고 지속가능해질 때까지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 제안은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 밖의 기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하는 명확한 체계를 세워야 하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전기차 생산 확대가 그러한 예로서 부수적 목표보다 앞서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한 사업에 상당한 자원, 곧 자본, 연구개발, 인력 배치 등을 투입하는 일, 예컨대 개인용 옵티머스 로봇을 개발하거나 옵티머스가 은하를 탐사하게 하는 일 등은, 테슬라가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유의미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일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밝힌다. 테슬라가 자사 제품과 사업을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할지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일상적 운영에 근본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주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본 제안은 Rule 14a-8(i)(7)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본 제안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테슬라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다.

또한 실무진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해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The Coca Cola Co. (Mar. 6, 2024)에서 문제된 제안은 회사가 "더 건강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사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 제품군이 얼마나 건강한지 평가할 것도 요구했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통상적 사업 사안에 관련된다"는 이유로 배제에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Dominion Resources, Inc. (Feb. 22, 2011)에서 문제된 제안은, 회사가 일부 고객에게 "2012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 제안의 보충 설명은 고객에게 재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또한 그것이 회사의 "좋은 기업 시민이라는 이미지"를 높이고, 그 밖에도 여러 "이로운 효과"를 회사에 가져온다고 밝혔다. 실무진은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허용하면서, 그 제안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통상적 사업 사안에 관련된다고 결론지었다. 다음도 참조. JPMorgan Chase & Co. (Mar. 19, 2019)에서는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멕시코 테우안테펙 지협을 가로지르는 해상 운하 건설의 정치, 경제, 공학"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요구했고, 실무진은 그 제안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다"고 밝혔다. Mondelz International, Inc. (Feb. 23, 2016)에서는 회사의 나노물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한 제안에 대해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The TJX Companies, Inc. (Apr. 16, 2018)에서 문제된 제안은 이사회에 "새롭고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정책은 "(회사의) 모든 매장, 상품,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Amazon.com, Inc. (Mar. 11, 2016)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회사가 "공급망 내 동물 학대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구했다. 그 보충 설명은 그 보고서가 여러 우려 사항을 다루도록 요구했는데, 그 사항들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된 동물 학대에 대해 회사가 두고 있는 정책과 지침에 관한 것이었다. 실무진은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Rule 14a-8(i)(7)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Amazon.com, Inc. (Mar. 27, 2015)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동물의 처우와 관련해 ... 직면할 수 있는 평판 및 재무 위험”을 공개하라는 것이었고, 실무진은 이것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다고 보았다. The Walt Disney Co. (Nov. 23, 2015)에서 문제된 제안은 회사 이사회가 특정 영화를 Blu-ray로 출시하는 것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다”고 밝히며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했다. Papa John’s International Inc. (Feb. 13, 2015)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회사가 자사 식당에 비건 메뉴를 늘리라는 것이었다. 제안자는 그 제안이 동물복지를 증진한다고 주장했으나, 실무진은 이를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Wal-Mart Stores, Inc. (Mar. 20, 2014)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협하는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회사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지 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가치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사회가 감독하라는 것이었다. 그 근거는 그 제안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다는 점이었다. Wells Fargo & Co. (Jan. 28, 2013, Mar. 4, 2013 재심 기각)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회사의 직불 선지급 대출 서비스가 낳는 사회적, 재무적 영향에 회사의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다”고 보았고,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rule 14a-8(i)(7)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FMC Corp. (Feb. 25, 2011, Mar. 16, 2011 재심 기각)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무엇보다 특정 농약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를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몇몇 농약도 대상으로 삼았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관련된다”고 밝혔다. Wal-Mart Stores, Inc. (Mar. 24, 2006)에서 문제된 제안은 이사회에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든 유해물질에 고객이 노출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라고 요구했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특정 제품의 판매”에 관련된다고 보고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했다.

이 사안에서 본 제안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에 관한 회사의 구체적인 제품 개발 정책을 지구상의 개발에 집중하는 특정 용도 쪽으로 돌리려 한다. 회사의 사업 운영과 제품 전략에 관한 구체적 결정에는 수많은 요소가 얹혀 있으며, 여기에는 회사가 특정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관한 정책과 회사 자원의 배분이 포함된다. 그러한 판단은 주주보다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내리는 편이 적절하다. 제품 안전, 경쟁 전략,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법규 요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과 품질의 제품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그 판매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에 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심의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주주의 전문성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따라서 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본 제안은 Rule 14a-8(i)(7)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본 제안은 기술의 선택과 관련된 테슬라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다

실무진은 회사가 사업 운영에 사용할 기술의 선택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PG&E Corp. (Mar. 10, 2014)를 보라. 문제된 제안은 “스마트” 계량기 대신 아날로그 전기 계량기를 공급하라고 요구했고, 실무진은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했다. FirstEnergy Corp. (Mar. 8, 2013)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회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자원 확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사의) 에너지를 다변화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실무진은 “회사가 사업 운영에 사용할 기술의 선택에 관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AT&T Inc. (Feb. 13, 2012)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문제된 제안은 여러 요구 가운데 회사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셋톱박스의 개발과 보급을 앞당기려는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AT&T 셋톱박스에 사용되는 기술에 관련된다”고 보았고, “회사가 사업 운영에 사용할 기술의 선택에 관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CSX Corp. (Jan. 24, 2011)에서는 차량을 연료전지 동력으로 개조하는 키트를 개발하라고 요구한 제안에 대해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실무진은 “회사가 사업 운영에 사용할 기술의 선택에 관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rule 14a-8(i)(7)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논한 것처럼 본 제안은 회사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 밖의 기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응용 분야에 들어갈 자원을 재생에너지 제품 쪽으로 돌려 미루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본 제안은 테슬라가 사업 운영에 사용할 기술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이는 회사의 기술 선택을 다루려는 제안이 배제될 수 있다고 실무진이 동의한 사건들과 정확히 같다.

근본적으로 본 제안은 회사의 운영 전략과 우선순위를 지시함으로써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간섭하려 한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로서 기술 개선과 성취의 최전선에 서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 가고 있다. 회사가 간섭 없이

신기술 개발을 이끌고 전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그에 맞추어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역량은, 선도적인 전기차-에너지 기업으로서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일상적 운영에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주주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본 제안은 회사가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로 그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본 제안은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을 넘어서는 중대한 정책 사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1998년 발표문은 중대한 사회 정책 사안에 “초점을 맞춘” 제안은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대한 사회 정책 사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스치듯 언급하는 데 그치는 제안, 곧 그러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 부수적인 관련만 있는 제안은 사정이 다르다. 그런 제안은 본래 통상적 사업에 관한 제안이던 것을 통상적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안으로 바꾸지 못하며, 따라서 Rule 14a-8(i)(7)에 따라 계속 배제할 수 있다. 1998년 발표문 및 Staff Legal Bulletin No. 14E (Oct. 27, 2009) (“SLB 14E”) 참조. 실무진은 제안이 잠재적으로 중대한 정책 사안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제안이 통상적 사업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주주제안의 배제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JPMorgan Chase & Co. (Mar. 12, 2010)에서 문제된 제안은 여러 요구 가운데 산꼭대기를 깎아 내는 방식의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에 금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회사가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실무진은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본 제안은 [회사의] 프로젝트 금융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는 사항, 예컨대 특정 유형의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그 밖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관한 (회사의) 결정까지 다루고 있다.” 다음도 참조. PetSmart, Inc. (Mar. 24, 2011)에서는 제안이 동물의 인도적 대우라는 잠재적 중대 정책 사안을 다루기는 했으나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이 다른 법령의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인데, “동물 학대 같은 중대한 위반부터 기록 보관 같은 행정 사항의 위반까지” 아물렀다. CIGNA Corp. (Feb. 23, 2011)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감당할 만한 의료에 대한 접근이라는 잠재적 중대 정책 사안을 다루었으나, 동시에 통상적 사업 사항인 비용 관리에 관해 보고할 것을 CIGNA에 요구했다. Capital One Financial Corp. (Feb. 3, 2005)에서도 Rule 14a-8(i)(7)에 따른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아웃소싱이라는 중대한 정책 사안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회사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통상적 사업 사항이다.

회사는 최근 실무진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부 제안에 대하여 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제안들이 통상적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이유였다. 예를 들어 Paramount Global (Apr. 19, 2024)에서 실무진은 Rule 14a-8(i)(7)에 따른 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제안은 회사가 사업 운영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사용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둘러싼 윤리 지침도 포함되었다. 그 제안은 특히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대중의 커지는 우려와 불신”을 문제 삼았고, 기업의 인공지능 사용이 차별, 노동자의 권리,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중대한 정책적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본 제안은 명목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다룰 뿐, 어떠한 중대한 정책 사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고려를 전혀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제안의 초점은 오히려 테슬라의 전사 기업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본 제안은 지구와 무관한 사업은 “미루고”, 세계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을 앞당긴다는 테슬라의 전사 기업 사명에 부합하는 목표를 우선하라고 말한다. 설령 본 제안이 잠재적으로 중대한 정책 사안을 건드린다고 보더라도, 본 제안이 압도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회사의 기술 개발과 자원 배분이며, 이는 본 제안의 초점이 통상적 사업 사항에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제안이 중대한 정책 사안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초점은 통상적 사업 사항에 있다.

따라서 본 제안은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Rule 14a-8(i)(7)에 따라 위임장 서류에서 배제할 수 있다.

b. 본 제안은 회사에 대한 세부 경영 간섭을 시도한다.

본 제안은 복잡한 정책을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강제함으로써 경영진의 전문성을 주주의 결정으로 대체하려 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세부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

앞서 밝혔듯이 Rule 14a-8(i)(7)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인의 위임장 설명서에서 주주제안을 누락할 수 있도록 한다. 곧 제안이 복잡한 성격의 사안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 회사에 “세부 경영 간섭”을 하려는 경우이며, 그러한 사안은 주주가 집단으로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안이다. 위원회는 세부 경영 간섭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1998년 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주주가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문제는 “여러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데, 예컨대 제안이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복잡한 정책을 시행할 구체적 기한이나 방법을 강제하려는 경우가 그렇다”(각주 생략). Staff Legal Bulletin No.

14L (Nov. 3, 2021) ("SLB 14L")에서 실무진은 제안이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판단은 "제안이 요구하는 세부 수준, 그리고 그 제안이 이사회나 경영진의 재량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는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다.

이 사안에서 본 제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곧 본 제안은 복잡한 정책을 시행할 구체적 방법을 강제하려 하고, 아울러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을 요구한다. 본 제안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관한 회사의 사업 운영과 제품 전략을 지휘하려 하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우선하라고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본 제안은 특정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주주에게 연례 보고를 하라고 요구한다. 곧 "구체적 성과와 자원 배분을 포함하여 사명을 어떻게 앞당기고 있는지"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제안의 결의 조항은 회사에 다음을 요구한다. "지구상의 생명이 안정되고 지속가능해질 때까지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업이 지속가능 에너지를 진전시킨다는 테슬라의 사명을 우선하고 주로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라." 본 제안은 이어서 회사가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 밖의 기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 틀은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전기차 생산 확대처럼 세계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방식을 부수적 목표보다 우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본 제안은 테슬라가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상당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 줄" 때까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한" 사업은 "미루라"고 요구한다. 본 제안은 그러한 이정표의 예로 다음을 든다. "연간 1,000 GWh의 배터리 용량을 생산하고 배치하는 것, 태양광 에너지 도입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이루는 것, 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 있게 줄이는 것." 그런 다음 이러한 "구체적 성과와 자원 배분"에 관한 "연례 업데이트"를 요구한다.

실무진은 제안이 복잡한 정책을 시행할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주주제안의 배제를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Tesla, Inc. (Mar. 27, 2024)에서 실무진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회사가 차량 타이어를 다시 설계하여 6PPD-Q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을 피하도록 요구한 제안은 회사에 대한 세부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 다음도 참조. Amazon.com, Inc. (Apr. 7, 2023, Apr. 20, 2023 재심 기각)에서는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회사가 기존에 취하던 방식과 맞지 않는 특정 방법론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에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JPMorgan Chase & Co. (Mar. 29, 2024)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회사에 다음의 공개를 요구했다. "신뢰할 만한 Net Zero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에게 귀속되는 부문별 배출량의 비중, 부합하지 않는 고객의 이 비중 때문에 회사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배출 감축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하는 조치." The Goldman Sachs Group, Inc. (Mar. 4, 2024)도 같다. Bank of America Corporation (Feb. 29, 2024, Apr. 15, 2024 재심 기각)도 같다. Morgan Stanley (Mar. 29, 2024)도 같다. Chubb Ltd. (Mar. 27, 2023)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새로운 화석연료 탐사·개발 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인수 위험을 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책을 채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기한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 목표에 맞춘 것이었다. SeaWorld Entertainment, Inc. (Apr. 20, 2021)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동물 복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RH (May 11, 2018)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오리탈이 들어간 제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책을 회사가 채택할 것을 요구했는데, 실무진은 그 제안이 "복잡한 정책을 시행할 구체적 방법을 강제하려 함으로써 회사에 세부 경영 간섭을 한다"고 지적했다. JPMorgan Chase & Co. (Mar. 30, 2018)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오일샌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과 기업 대출, 인수, 자문, 투자에 따르는 평판·재무·기후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고, 실무진은 그 제안이 "복잡한 정책을 시행할 구체적 방법을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SeaWorld Entertainment, Inc. (Mar. 30, 2017, Apr. 17, 2017 재심 기각)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살아 있는 범고래 전시를 가상현실 체험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는데, 실무진은 그 제안이 "복잡한 성격의 사안, 곧 주주가 집단으로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안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 회사에 세부 경영 간섭을 하려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Ball Corporation (Feb. 4, 2016)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회사의 정책과 조치, 계획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했다. 평판·규제 위험에 비추어 제품에서 BPA 사용을 줄이고 BPA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정량 목표를 설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실무진은 그 제안이 회사의 제품 개발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진은 제안이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한 배제에 일상적으로 동의해 왔다. 다음을 참조.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Nov. 29, 2024)에서는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로비 및 풀뿌리 로비 활동을 규율하는 회사의 정책과 절차 등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요구한 것이었다. Delta Air Lines, Inc. (Apr. 24, 2024)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내부 비용과 외부 비용을 포함한 "노조 억압 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Paramount Global (Apr. 19, 2024)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5,000 이상인 기업 자선 기부금의 수령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Walmart Inc. (Apr. 18, 2024)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기존 보고 체계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범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분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Phillips 66 (Mar. 20, 2023)에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이유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그 제안은 결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자산 폐기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할인 전 기대 금액을 기술한 감사 보고서를 요구했다. Valero Energy Corporation (Mar. 20, 2023)도 같다.

또한 주주제안을 보고서 요구의 형식으로 꾸민다고 해서 그 제안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대상이 발행인의 통상적 사업에 속한다면 보고서 배포를 요구하는 제안도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change Act Release No. 20091 (Aug. 16, 1983) 참조 (이하 "1983년 발표문"). Johnson Controls, Inc. (Oct. 26, 1999)도 참조. 여기서 실무진은 "[특정 제안에서] 구하는 추가 공시의 대상이 통상적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제안은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Netflix, Inc. (Mar. 14, 2016)도 참조. 실무진은 또한 연구나 보고서를 요구하는 제안도 세부 경영 간섭을 근거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예를 들어 PayPal Holdings, Inc. (Mar. 6, 2018) 참조. 그 사안의 제안은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회사에 요구했고, 실무진은 세부 경영 간섭을 근거로 배제를 인정했다. Devon Energy Corporation (Mar. 4, 2019) 참조. 그 사안의 제안은 이사회가 단기·중기·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시하되 그 목표를 파리 기후 협약에 맞추도록 요구했고, 여기서도 세부 경영 간섭을 근거로 배제가 인정되었다. 나아가 회사의 사업 운영에 세부적으로 간섭하려는 제안은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 그 제안이 "중대한 사회적 정책 사안"을 제기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SLB 14E의 주석 8 참조. 이 대목은 1998년 발표문을 인용해 다음 전제를 든다. "(중대한 정책 사안을 제기하는) 제안이라도 회사를 세부적으로 간섭하려 든다면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 곧 주주가 집단으로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을 지나치게 깊이 파고드는 경우다."

이 사안에서 본 제안이 요구하는 보고서는 회사에 인공지능 전략을 다루는 특정한 방식을 채택하라고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회사의 전체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회사의 인공지능·로봇공학 사업에 관한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까지 담게 만든다. 이 점에서 본 제안은 요구가 과도하게 구체적이며, 회사의 근본적인 기업 전략과 그에 관한 보고에 간섭하려 한다. 회사의 기술 혁신, 연구개발 비용과 그 배분, 태양광 에너지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결정은 복잡한 경영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여러 부문에 걸친 회사 팀들이 무엇이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무엇이 사업과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각기 따로 평가해야 한다. 회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바로 1998년 발표문과 SLB 14L이 Rule 14a-8(i)(7)에 따른 배제 대상으로 인정한 일상적 운영 결정에 해당한다. 본 제안은 특정 전략을 강제하고, 그 전략에 관한 공시의 진행 상황을 주주에게 세세히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복잡한 정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제안은 주주가 집단으로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을 지나치게 깊이 파고든다.

따라서 본 제안은 회사의 통상적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Rule 14a-8(i)(7)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

결론

회사는 위임장 서류에서 본 제안을 배제하더라도 실무진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실무진에게 질문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회사가 위임장 서류에서 본 제안을 배제할 수 있다는 데 실무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cassie.zhang@tesla.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자가 위원회에 답변서나 그 밖의 서신을 제출하기로 한다면, 그 답변서나 서신을 회사에도 동시에 제출하고 아래 서명자에게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Rule 14a-8(k)와 SLB 14D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쉐후이 캐시(Xuehui Cassie Zhang)
준법무담당 부사장

참조: 마이클 매커천

부속서 A

주주제안: 지구 우선,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본연의 사명에 집중시키자

제안 배경

테슬라가 내건 사명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대담하고 존경스러운 목표가 있었기에 수많은 개인 주주가 투자했고, 전기차 출시에 환호했으며, 사이버트럭의 복고풍 각진 디자인에도 마지못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의 제품 로드맵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주주들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시바견보다 빠른 속도로 새 재주를 배우고 있고, 테슬라 차량들을 인공지능 추론에 쓰자는 이야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로봇공학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 기술의 쓰임새가 우리 모두의 공동 사명을 앞당기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결의 사항

일론이 재능도 많고 관심사도 많고 밈도 많은 사람이라는 건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로봇 찬성파입니다. 그래도 주주로서 저희는 테슬라의 최첨단 기술이 지구와 인류를 먼저 위한다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행성에도 야심 찬 과제가 이미 넘칩니다. 태양광을 키우고, 배터리 저장 기술을 완성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태양계까지 손대기 전에 먼저 집중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의 생명이 안정되고 지속가능해질 때까지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앞당긴다는 테슬라의 사명을 최우선에 두고 주로 그 사명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실행 방안 제안

테슬라의 사명과 주주의 이익에 발을 맞추기 위해, 이 결의안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 밖의 기술 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 전기차 생산 증대처럼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일을 부수적인 목표보다 앞세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한 사업, 예컨대 개인용 옵티머스 로봇을 개발하거나 옵티머스를 은하계 탐험에 내보내는 일에 상당한 자원, 곧 자본이나 연구개발이나 인력 배분을 쏟는 것은, 테슬라가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뚜렷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 줄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그런 이정표의 예로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배터리 용량을 1,000 GWh씩 생산해 배치하는 것,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서 큰 돌파구를 여는 것,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는 것입니다.

- 이사회는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업이 사명을 어떻게 앞당기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자원 배분 내역까지 담아 해마다 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맺음말

“지구 우선” 정책은 테슬라의 날개를 꺾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개의 방향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세상을 바꾸는 회사의 혁신이, 애초에 우리를 주주로 만들어 준 그 지속가능한 미래와 계속 발을 맞추게 해 줍니다.

테슬라의 사명이 당분간은 이 행성에 발을 붙이고 있게 합시다. 어차피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집이니깐요. 스페이스엑스 스타십이 그 너머로 떠날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요.

본 제안에 찬성 표를 던져 주십시오. 지구를 영영 떠나 버리기 전에, 지구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